

2017 August

08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한우자조금



## 포커스

일본 쇠고기 산업  
현황을 보니

## 자조금 소식

쇠고기이력제 활용한  
축산관측 연구

## 피플

충남도청  
오형수 축산과장

## CONTENTS



06



### 04 포커스

· 최근 일본 쇠고기 산업 현황을 보니

### 06 자조금 소식

· 쇠고기이력제를 활용한 축산관측  
· 충북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 한우숯불구이축제 결과 보고회  
· 한우농가 스위스·독일 방문  
· 대의원협의회/관리위원회  
· 한우 온라인 홍보  
·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

07



### 13 한우협회 소식

· 한우산업발전간담회 도별 개최

09



### 15 농장 플러스

· 축사를 임차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 16 미디어 속 한우

· TV 속 한우, 시청자가 소비자로 변하는  
빠른 방법

10



12



13





표지 「한국의 소 '우직한 소' 동행」 2009, 김시동

발행일 2017년 8월 7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플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02.522.3606 Fax.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 16 파플

·충남도청 오형수 축산과장

## 20 성공 스토리

·군위 이로운한우 한우직판장

## 22 한우 시황

·공급 물량 증가했으나,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8월 도매가격 약세

## 24 농가를 찾아서

·충북 청주시 하늘아래목장 곽문규

## 26 건강 플러스

·한여름 숙취 해소 한우 요리로 똑딱

## 27 웹진/비즈링 이벤트

·웹진 소개와 경품  
 ·휴대폰 컬러링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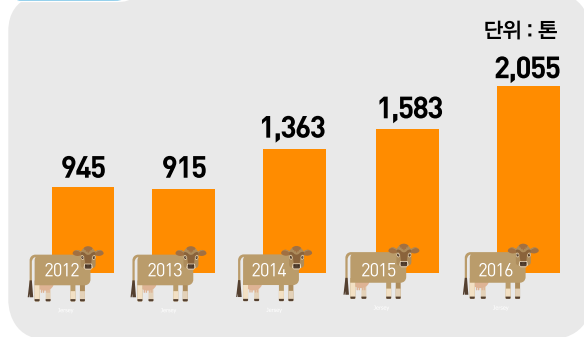


## 최근 일본 쇠고기 산업 현황을 보나...

철저한 품질 관리와 마케팅을 기반으로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일본 쇠고기 시장이 생산량 부분에서 하락세에 직면했다. 지난해 일본 소 사육두수는 247만 9천 두(화우 164만 두)로 1990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 사육농가 또한 5만 2천 호로 지속 감소 중이다. 일찍이 고급 브랜드화에 성공해 그 수출 전략을 한우 산업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쇠고기 시장. 2017년 수출 전망도 긍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해외 수출 호조가 곧 생산량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쇠고기 수출량



### 화우 생산량 감소로 수입 쇠고기 증가, 도매가격 상승

일본 쇠고기는 2016년 32만 4천 톤이 생산됐는데 이는 2015년 33만 2천 톤보다 2.4% 감소한 수치다.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는 도축두수 감소로 직결됐다. 화우의 도축두수는 2013년부터 매년 4.6%씩 감소, 지난해에는 44만 두까지 낮아졌다. 1990년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2016년 기준 일본 전체 소 도축두수는 104만 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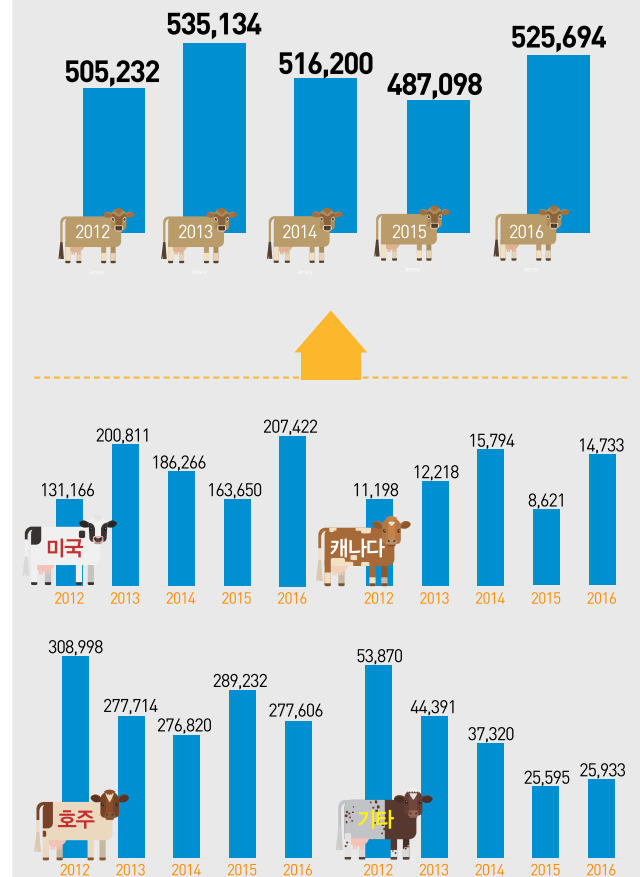
쇠고기 생산이 감소하는 데는 내외부적 원인이 있으나, 결국 생산 감소는 수입 쇠고기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일본의 수입 쇠고기 물량은 약 52만 6천 톤으로 2015년보다 7.9% 증가했다. 호주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역시 광우병 파동을 넘긴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만 7천 톤을 기록했다.



일본 쇠고기 수입량

미국, 캐나다, 호주, 기타 총합

단위 : 톤



화우 생산량이 감소하면 공급 부족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로 지난해 화우 등심 도매가격은 가장 높은 A-5등급 기준으로 kg당 3,135엔(약 3만 1,418원)으로 2015년 2,804엔에 비해 11.8% 상승했다. 이는 소매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화우 소매가격은 등심 기준으로 100g당 1,342엔(약 1만 3,269원)으로 2015년 1,314엔보다 2.1% 상승했다. 이에 교잡종 등심의 소매가격까지 덩달아 상승 중이다.

### 화우농가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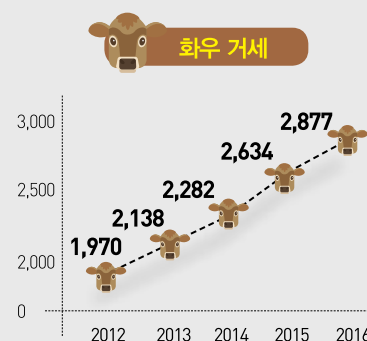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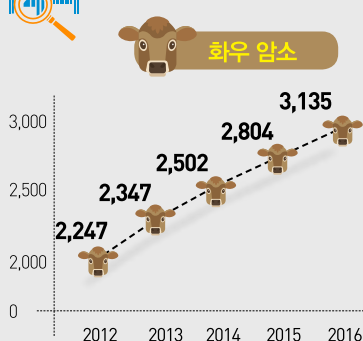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화우 산업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육용우 번식경영안정 지원사업**,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가 있다.

먼저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은 농가의

조수입(필요한 경비를 빼지 않은 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때 국가가 1:3의 비율로 거출한 예산을 사용,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비육 농가를 위한 소득 안정 장치다. 그리고 **육용우 번식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분기별 송아지 평균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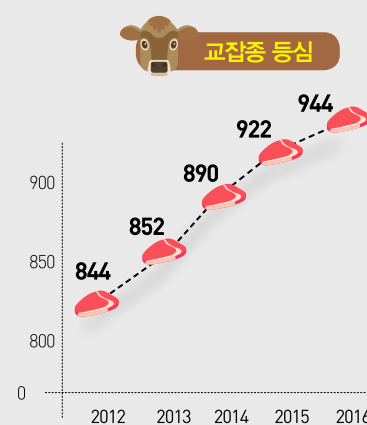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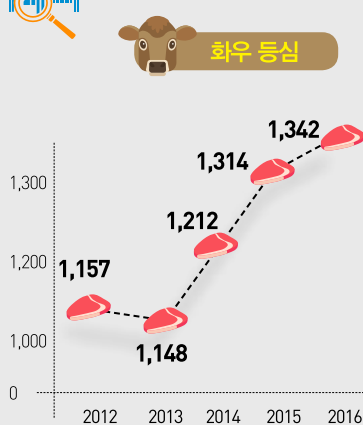
### 도매가격 현황

단위 : 도쿄시장, 엔/kg



### 소매가격 현황

단위 : 엔/100g



가격이 경영비와 가족노동비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3/4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는 송아지 가격 하락 추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증기준가격을 설정해, 송아지 가격이 그 이하로 형성될 경우 생산자보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화우농가를 위한 이 같은 지원책이 생산량 증가와 가격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최근 수치를 살펴보면 화우의 금년 3월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고 쇠고기 해외 수입은 금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했다. 도매가격은 화우 거세 A-5등급 (도쿄시장 기준)이 지난해보다 1%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화우 사육 증가와 이를 통한 공급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자료 한우자조금 교육조사부 제공

자조금 소식

01

쇠고기이력제 활용 축산관측 고도화 연구 결과

## 한우 공급 · 수요 관련 새로운 수급전망모형 개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한 쇠고기이력제를 활용한 축산관측 고도화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한우 수급전망모형 개발이라는 성과를 이룬 이번 연구는 기존 한우 관련 수급모형의 장단점을 살피고, 한우 수급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제 자료를 수집했으며 학계·정부·생산자 단체 등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우수급전망모형 확보 덕에 한우산업은 가축 동향 조사의 소 통계가 이력제 DB로 완전히 대체(2017년 9월부터)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한우 수급전망모형은 공급 부문, 수요 부문, 가격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 부문은 정액판매량 추정식, 출생두수 추정식과 공급량으로서의 도축두수 추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요 부문은 수요량의 도축두수

추정식으로, 가격 부문은 균형 가격인 도매가격과 기타 가격으로 구성된다.

이번 쇠고기이력제를 활용한 축산관측 고도화 연구 결과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력제 자료는 농가 신고를 기반으로 생성하므로 사육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위한 정책적 또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통계청 이력제 자료 대체 후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실시간 송아지 생산량과 번식 의향을 예측할 수 있는 암소 인공수정 정보 입력·관리 시스템 구축, 이력제 자료를 기초로 한 관측정보 제공 체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

지난 7월 6일 충북 청주시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충북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이 열렸다.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과 위생적인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자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한 심포지엄은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우협회 충북도지회 박병남 지회장, 충북도청 남창현 정무특별보좌관이 참석해 170명 이상의 충북 한우농가와 결의를 다졌다. 민경천 위원장은 “농가의 민원과 쓴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한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축산인을 넘어 ‘축산 경영인’으로

‘미래 한우산업을 위한 영농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대구대학교 최창원 교수는 한우산업이 규모 위주에서 친환경·고품질 위주로,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맞춤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우 브랜드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과 그 품질의 표준화, 다양한 마케팅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원 교수는 “마블링이 많은 한우나 옥수수 지방산을 섭취한 한우가 유해하다는 보도는 편향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한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설명하여 한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자체 의지 중요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대 최성호 교수, 충북도청 김창섭 축산과장, 대구대 최창원 교수, 한우협회 충북도지회 박병남 지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 충북대 대학원 황재민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나 구제역 예방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 일부 공무원의 무성이나 행정 편의적 대응, 지자체 내 축산과·환경과·건축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의 어려움, 이행강제금 납부나 건축 행정 절차

강행 등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더불어

구제역 백신 투여 후 소 상태가

나빠지거나 유산, 사산했을 때의

보상도 그 범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한우농가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답변했는데 그중 최창원

교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승인과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 해낼 수 있다”면서 지자체를 향해 응원과 질타를 보냈다.

최창원 교수는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내년이지만 지역 농가의 사정은 각기 다르다. 단계적 유예 기간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밝혀 한우농가의 공감을

얻었다. 🍌

자조금 소식

03

한우숯불구이축제 결과 보고회

**최초로 전국 행사 실시! 그 결과와 개선점은?**

지난 7월 14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숯불구이축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우자조금 사업 최초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도에서 실시한 한우숯불구이축제 결과를 검토하는 이번 평가회에는 한우자조금 민정권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각 지역 한우협회 도지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한우 관계자들과 각 매체의 한우 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 소비자로부터 높은 만족도 이끌어내 한우 이미지 상승**

이번 행사기간 동안 총 매출액은 28억 4,500만 원으로 서울 7억 2,600만 원, 지역(10개 도) 21억 1,800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76.8%라는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는데,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맛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보완했으면 하는

점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편의 시설 확충, 한우 부위 다양화, 상차림 다양화, 홍보 확대 등이 거론되었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는 향후 5월 가정의 달 한우 숯불구이축제 진행 시, 행사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인지 도별 상황에 맞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축제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경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고, 별도로 개최할 경우 도별 상황에 맞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출 항목에 따라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고, 도별 축제 책임자를 선정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축제 투입 인력 관리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밖에 오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인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축제와 관련한 예산 배정과 추진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를 끝으로 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

## 축산 선진국 찾아 축산기술 비교 및 벤치마킹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2~29일, 7월 5~12일, 7월 12~19일 총 3차에 걸쳐 한우농가 89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유럽의 축산 트렌드 및 선진 축산기법을 알아보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총 89명의 한우농가는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중·남부와 스위스의 다양한 축산 관련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하였다. 연수단은 먼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하며 독일의 쇠고기 판매 현장을 견학한 이후 스위스로 이동해 스위스 가축생산자협회, 도축장, 유기농장 등을 방문, 스위스의 축산 현황을 관찰했다. 스위스 현지에서도 한국 한우농가의 방문(1차)에 깊은 관심을 보여 현지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스위스 연수 일정을 마친 이후 연수단은 다시 독일로 돌아와 독일의 6차 산업 농장과 독일 육우협회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독일 육우 산업 현황을 알아보고 다양한 축산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연수토론회로 한국의 생산 및 유통·판매 시스템과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우자조금에서는 이번 연수 참여 농가의 의견 및 평가 결과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에 더욱 발전된 해외 연수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



## 도별 대의원협의회 및 제4차 관리위원회 개최

## 한우농가 위기 돌파와 한우자조금 효율적 운용 강구



## 도별 대의원협의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22일 전남을 시작으로 7월 3일 경기, 7월 7일 강원, 7월 18일 충남, 7월 19일 경남에서 한우자조금 대의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차 대의원협의회에서는 가정 간편식 한우스테이크 홍보, 한우 소비 촉진 행사결과, MBC '뉴스투데이' 햄버거병 관련 방송에 따른 조치사항,

한우수출 지원 관련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대의원협의회에 참석한 도별 대의원 및 지부장 등은 공판장별 부산물 가격 차이 개선, '혼밥·혼술'과 같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소량 포장 확대, 한우 맛 체험행사 예산 증액, 한우 마블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홍보, 한우 홍보에 대한 방향성 제안 등 한우자조금 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검토해 한우자조금 예산을 홍보·광고, 교육 등 어느 분야도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 한우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제4차 관리위원회

도별 대의원협의회에 이어 지난 7월 25일에는 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관리위원회에서는 한우자조금의 사업추진 실적과 현안보고, 그리고 예비비 사용(안)등의 의결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한우자조금 주요 당면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5월에 진행된 도별 숯불구이축제 행사 결과보고, 그리고 수급안정적립금 활용방안을 위한 TF회의 결과 등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한우의 자급률 하락,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부산국제영화제, 금산국제인삼엑스포에 참가해 한우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금산국제인삼엑스포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권고도축에 의한 자조금

납입면제 기준을 브루셀라, 결핵 뿐만 아니라 요네병 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여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자조금 소식

06

한우 보관법과 보양식 꿀팁 안내

여름 보양식, 우리 한우로 즐겨요~



한우 콜드 파스타

한우자조금 온라인 채널에서 여름철 한우 보관법과 요리 레시피를 소개했다. 음식물 관리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한우 보관법과 신선한 한우 구입법에 대한 정보를 알리며 ‘한우 콜드 파스타’, ‘한우 밀푼유나베’, ‘한우라면’, ‘한우 수삼 떡갈비’ 총 4가지 요리의 동영상 레시피를 게재해 7월 말 기준 17만 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복날 누구와 함께 여름 보양식을 먹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님과 함께 한우로 건강을 챙기고 싶다는 의견과 연인과 함께 한우로 복날 몸보신을 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자조금은 앞으로도 가족이나 연인 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우 요리 레시피와 다양한 알짜 정보로 온라인 채널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

한우 밀푼유나베



한우라면

자조금 소식

07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분과위원회 개최

## 한우 홍콩 수출 규정 재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지난 6월 3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육우수 급조절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농식품부 조재성

사무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등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있었다.

개선대책(안)의 추진 배경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생산 구조와 FTA 시행에 따른 관세율 감축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거론됐다. 개선대책(안) 중 사육기간 단축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고기 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우려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회의에서는 한우 유통 구조의 문제와 정액공급 문제, 출하예약제의 개선, 한우수출협의회 관련 내용 등도 추가 논의했다.

### 한우 수출분과위원회

이어 지난 7월 10일에는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수출분과위원회가 한우자조금, 한우협회, NH무역, 농협 축산유통부, 형성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축산과학원, 서귀포축협, 우전, 기본 글로벌, 현대그린푸드, 씨엘아이, 녹색한우, 제주축협,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태우그린푸드 등 한우수출업체 및



관계기관의 참석 하에 열렸다.

제2차 수출분과위원회는 수출 관리규정 관련 수출하한가격 재설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한우수출분과위원회는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우의 품질, 가격, 홍보 등 관련 기준을 세우고 지켜왔는데, 일부 후발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한우 수출시장의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

이에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관리규정 제9조(가격기준)에 명시된

수출하한가격(국내유통단가+10%)을 실제 비용(수의사 비용, 수출물류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재설정하고, 수출하한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의결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통과정별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 업체마다 상이하여 수출업체와 세부적으로 협의 후 다음 회의에 재상정 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콩 푸드 엑스포 운영계획(안)'도 공개됐다. 한우자조금은 8월 17~19일 본 박람회에 참가, 한우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해외바이어들과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

한우산업발전간담회, 경남·충남·전남·전북까지 도별 개최

## 한우 산업 지도자 양성과 전국한우협회 활동 설명



### 한우농가 일일이 찾아 만나 계속 다져

지난 7월 한우산업발전간담회가 4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마련된 간담회는 7월 6일 부산·경남도지회(강원 평창군 한화리조트)를 시작으로, 11일 광주·전남도지회(전남 영암군 영암축산농협), 18일 대전·충남도지회(충남 홍성군 자연드림), 20일 전북도지회(전북 전주시 라루체)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 열린 한우산업발전간담회는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과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농가 운영을 위한 강연과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각 지역 한우농가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하였으며,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도 “한우농가를 위한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 한우농가 위한 강연과 토론의 장

김성우 박사의 ‘한우 산업 지도자의 리더십’ 강연은 한우농가가 새로운 소비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됐다.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증가, 부정청탁금지법 등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더욱 단결해야 하며 정보 교류도 늘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생산만 하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마케팅, 제품개발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한우 브랜드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전국한우협회가 축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개인 농가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탄생했다는 말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했다. 호주산 생우 수입 차단, 한우자조금 설치, 원산지 표시제 법제화, 협회직거래유통망 구축, 한우 가격 안정 주도 등 그간 성과 발표와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 대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조치법, 직거래 유통과 생산비 절감 등 이후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 한우 생산량 조절, 특정 부위 등급 둔갑 지적

한우농가의 고충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회 시간에는

미경산 한우 암소 사육의 지원 확대와 구이용

한우의 등급 둔갑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결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한우농가는 엄격한

등급 판정으로 생산비 미만의 가격을

받기도 하는데 막상 시중에서 저가

등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이에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2등급 이하로 판정을 받은 한우가 유통

과정에서 등급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축되는 2등급 비율에 비해, 시중에서 팔리는

2등급 한우 비율(등심, 채끝살 등)이 현저히 적다는 게

문제였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 과잉

생산이 가격 폭락으로 번질 위험성을 미경산 암소 사육

확대로 대비하자는 건의에 동의했다. 당장 한우 가격이

높다고 생산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농가로

돌아오는 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경산 한우 사육농가 난소 제거비 지원, 사료비 지원이

나왔다.

김홍길 회장은 이 밖에도 한우개량사업소로부터 한우

정액을 공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토론회 또는 진상조사를 열고 전문가 조언도 듣겠다”고

밝혀 참석한 한우농가의 공감을 얻었다. 

축사를 늘리는 방법은 직접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축사를 매입하는 경우가 가장 확실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축사를 임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차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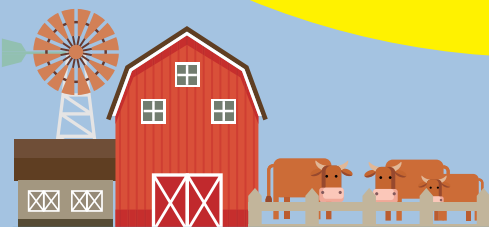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관련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없었던 시설물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시설물을 교체한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 기간 중 축사의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시설을 수리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근거를 남기고, 만일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권 또는 부동산 가압류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축사를 임차할 때 살펴보고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 김태욱 변호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법률상담' 페이지를 신규 오픈했습니다.

한우 경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변호사가 답변드리니 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률상담](#)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교양 · 정보

### KBS2 <2TV 생생정보>

7월 3일 방송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저렴하게 한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한우를 먹거나 수상레포츠인 수륙양용차를 체험하면 할 인되는 판매장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휴가철 한우 소비를 유도했다.

###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7월 12일 방송에서 여름철 한우 몸보신 식단과 캠핑장에서 한우를 즐기는 법 등이 소개됐다.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캠핑 인구를 겨냥, '한우 채끝 타다끼', '설도 너비아니 파스타', '설도 너비아니 파스타' 레시피를 소개 했으며, 캠핑장 요리 시식 반응도 함께 방영하여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다양한 방송 채널을 활용해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부지런히 알렸습니다.

전국 시청자들은 교양,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한우를 접하며 한우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V 속 한우,  
시청자가 소비자로  
변하는 빠른 방법



### SBS <모닝와이드>

7월 21일 방송에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한우 요리와 보양식을 소개했다. 한우 사골을 고아서 만드는 국밥 등 전통 보양식부터 한우 물냉면, 한우 수육무침 등 시원하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을 선보였으며 소비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한우 소비를 유도했다.



### 오락

#### KBS1 <노래가 좋아>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송에서 한우 선물세트 상품을 협찬했다. 하모니상은 방송 출연자 중 서로 간 호흡이 가장 뛰어난 팀에게 주는 상으로 평소 가장 선물 받고 싶어 하는 품목 중 하나인 한우를 부상으로 정해 시청자 반응이 특히 좋다. <노래가 좋아>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각자 사연이 있는 출연자들이 방송되며, 노래 대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 SBS 파워FM 107.7MHz <두시탈출 컬투쇼>

7월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우선물세트를 방송 협찬 상품으로 제공해 홍보 효과를 올렸다. 특히 “오늘은 한우 먹는 날 한우자조금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드립니다”라는 멘트로 청취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두시탈출 컬투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으로 개그맨 정찬우와 김태균이 DJ를 맡고 있으며 11년 연속 전제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다.

### 드라마

#### KBS2 <아버지가 이상해>

7월 2일 방송에서 대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한우를 먹는 장면을 노출했다. 한우를 밥숟가락에 얹어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이나 젓가락으로 집어 먹여주는 장면으로 가족과 한우 이미지를 교차시켰다. <아버지가 이상해>는 오순도순한 4남매 가족에 아이돌 출신 배우가 얹혀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로 주말 오후 7시 55분부터 방영되며 3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 충남도청 오형수 축산과장

# “충남 한우농가 위해 큰일 준비했죠”



충남도청 오형수 축산과장은 무너진 충남 한우농가 기반을 세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업무적 긴장감에 차 있다. 충남도청에서는 올해 약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두고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한우농가의 암소 개량 등을 지원해 수익을 안정시키고 충남 광역 한우 브랜드 ‘토바우’의 소비도 넓히기 위해서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끝내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 오형수 축산과장을 만나 충남 한우산업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 Q. 충남도청이 충남 시군, 한우협회 도지회 등과 진행하는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A. 암소별 능력과 정보를 파악해 저능력우의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을 구성해 농가 단위의 암소 개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생후 10개월 이상의 혈통 등록된 암소를 30두 이상 사육하는 한우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한우 맞춤형 우수 정액 공급도 진행합니다.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의 성공으로 충남 한우의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현재 한우 생산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며 1등급 이상 출연율도 낮습니다. 이번 사업이 충남 한우농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한우산업이 작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이도 종종  
봤지만 고비를 넘기고  
다시 성장하는 농가도  
많이 봤습니다. 한우  
산업이 좋은 길로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한우 개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충남 한우 브랜드 ‘토바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토바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토바우’는 2004년 출시한 충남 광역 브랜드입니다. FTA 등 대외 개방 확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수요 증가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브랜드 전용 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료 공장을 준공, 자체 개발 TMF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바우’는 혈통, 사료, 사양 체계가 갖춰진 우수 브랜드라고 자부합니다. 충남 지역 한우 중 좋은 것만 선별해 소비자에게 내놓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 매년 참가해 대상(대통령상), 최우수상 등을 빠짐없이 수상했습니다.

**Q.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사업’ 외에 준비하시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현재 충남의 한우 사육 규모는 전국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모 이외에 ‘고급육육성’ 지원 정책도 펼칠 것입니다. 한우 개량 선도농가 관리체계 구축과 우량 한우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조성으로 충남 한우가 규모와 질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껴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직면한 과제를 꼽자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담긴 깨끗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축산환경 조성은 한우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한우농가의 비용 부담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청은 지역건축협회의 협조를 통한 축사 개조 비용 인하를 추진 중이며 한우농가가 부담할 이행 강제금의 부분적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상태입니다.

**Q. 충남도청 축산과장이 되기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철칙과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A. 수의학을 전공하고 1986년 축산과 업무를 맡기 시작한 이래 31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IMF 위기와 FTA 타결, 구제역 파동 등 위기 때마다 한우농가 곁에 있었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젊은 시절에 비해 사명감과 책임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한우산업이 작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이도 종종 봤지만 고비를 넘기고 다시 성장하는 농가도 많이 봤습니다. 한우산업이 좋은 길로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경북 군위군 영농조합법인 한우직판장  
**이로운한우**

## 마케팅과 품질! 우리는 한우경영인

지하철, 은행의 스크린 광고, 일간지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설립 초반부터 승승장구한 경북 군위군 한우협회 영농조합 한우직판장 '이로운한우'는 주말에만 2,600명 이상의 소비자가 방문하는 지역 대표 한우인증점이다. 취재를 진행했던 지난 7월 16일, 한우직판장 앞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군위군 등지에서 찾아온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로운한우' 대표이사를 만나 성공을 거둔 이유를 알아봤다.



(왼쪽부터)공동 대표이사 도봉태, 하경수, 전용운

### 뿌린 만큼 거둔 마케팅 효과

'이로운'이라는 이름은 경북 군위군 농축산물의 공동 브랜드다. 군위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모두 '이로운'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판매할 수 있다. 가격과 품질 면에서 고객에게 '이로운한우'라는 의미, 한우의 가치에 딱 들어맞는 브랜드명이다.

'이로운한우'는 경북 군위군 한우협회에 소속된 8명의 한우농가가 공동 대표이사가 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설립 때 19명의 한우농가와 시작했으나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년 만에 11명이 탈퇴했다. 하지만 '이로운한우'는 그 후 거릿말처럼 손님이 몰렸다. 초창기 공격적으로 진행했던 마케팅이



효과를 보게 된 것. 주변 대도시인 대구를 상대로 지하철과 은행 스크린 광고, 일간지 광고 등을 진행해 인지도를 확보했으며, 한해에 그치지 않고 다년간 투자를 지속했다. 지하철·은행 광고만 5년, 대구 <매일신문>, <영남일보> 하단 광고도 3년을 이어갔다. 290명을 수용하는 ‘이로운한우’의 소비자 70%가 대구광역시 사람들인 것은 이런 마케팅 때문이다. 한우직판장이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절에는 하루 3,000여 명의 손님을 맞이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3년 전보다 300두 정도 줄어든 연간 1,000두의 한우를 소비하나 그동안 쌓은 성공으로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오히려 ‘이로운한우’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도 진출했다. 사이트 개설·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앞날을 위해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 한우농가만이 할 수 있는 직판장 경영

‘이로운한우’가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8명 대표이사의 노력 덕분이다. 먼저 대표이사들은 전체 공급 물량 중 약 20%를 자신들이 직접 키운 한우로 대체한다. 나머지 약 80% 물량도 군내 한우농가에서 구매하기에 지역 농가 수익 안정까지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군위군 내 도축장에서 ‘이로운한우’까지 거리는 10분 내외로 매우 가까운데, 등급 판정을 받을 한우와 도축된 한우의 구매·운반도 대표이사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단체 손님 접객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수익 확보 비결은 중량을 속이지 않으며 소량 추가 구매도 가능하게 한 운영 방식에 있다. 고객이 직접 보는 앞에서 무게를 달고 그대로 건네주며, 단 50g의 추가



주문도 부담 없이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에 처음 방문한 고객들은 어느새 단골이 된다. 많이 판매해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박리다매 시스템에서 고객 간의 신뢰 형성은 필수였다.

대표이사들은 직원 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이 당장 바라는 점이라고 했다. 외진 장소에 있기에 직원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 현재 5~6명 정도를 추가로 충원하고 싶다고 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대표이사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도운 적도 많다. 한우직판장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과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가 엿보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왈카지결한 테이블에 앉아 ‘이로운한우’의 한우를 직접 맛보는 기회를 맞았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한우구이를 맛있게 먹는 어르신들을 보자니 ‘이로운한우’의 맛과 가격이 다시 한번 반가워졌다. 🍲

# 공급 물량 증가했으나,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8월 도매가격 약세



## 사육전망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과 비슷

- 9월은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한 276만 마리(한우 263만 마리) 전망



## 공급전망

### 8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거세우 출하물량의 증가로 8월 도축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 전망
- 전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의 약세로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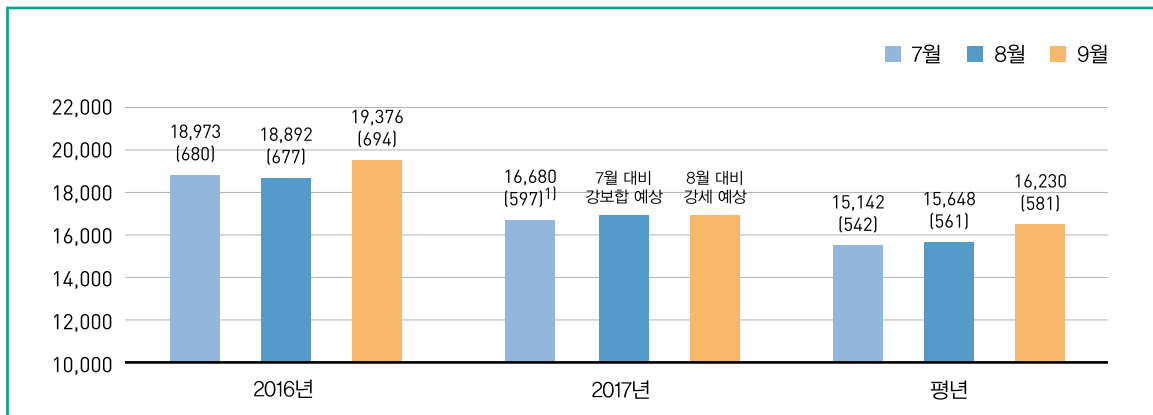
## 가격전망

### 8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약세 전망

- 공급물량 증가와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전망
- 9월 한우 도매가격은 추석 전 수요 증가로 전월보다 강세 전망

##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치 ]

단위 : 원/지육kg(만 원/600kg)



1) 7월 1~21일의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7월 한우 가격 및 출하 동향 ]

7월 1~21일 기준

| 구분                      |      | 평년<br>(2012~2016년) | 2016년  |        | 2017년  |        | 대비(%) |       |      |
|-------------------------|------|--------------------|--------|--------|--------|--------|-------|-------|------|
|                         |      |                    | 6월(A)  | 7월(B)  | 6월(C)  | 7월(D)  | C/A   | D/B   |      |
| 도축두수(두)                 |      | 882,436            | 52,525 | 36,652 | 54,783 | 38,341 | 4.3   | 4.6   |      |
| 경매두수(두)                 |      | 443,339            | 28,628 | 20,411 | 29,572 | 21,684 | 3.3   | 6.2   |      |
| 도매시장<br>경락가격<br>(원/kg)  | 평균   | 14,563             | 19,142 | 19,028 | 16,655 | 16,558 | △13.0 | △13.0 |      |
|                         | 거세우  | 15,530             | 20,607 | 20,348 | 18,168 | 18,065 | △11.8 | △11.2 |      |
|                         | 비거세우 | 11,746             | 15,235 | 15,577 | 11,771 | 10,997 | △22.7 | △29.4 |      |
| 가축시장<br>거래가격<br>(천 원/두) | 암소   | 4,364              | 5,978  | 5,986  | 5,330  | 5,250  | △10.8 | △12.3 |      |
|                         | 송아지  | 암                  | 1,762  | 3,252  | 3,277  | 3,105  | 3,094 | △4.5  | △5.6 |
|                         |      | 수                  | 2,421  | 4,015  | 4,014  | 3,917  | 3,934 | △2.4  | △2.0 |
| 불고기(1등급/kg)             |      | 34,227             | 46,110 | 46,563 | 45,755 | 46,564 | △0.8  | -     |      |
| 등심(1등급/kg)              |      | 64,940             | 76,300 | 78,276 | 77,813 | 78,958 | 2.0   | 0.9   |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 제외 가격

### [ 7월 한우농가 소득 추정 ]

7월 1~21일 기준

| 등급  | 도매가격<br>(원/kg) | 가격(A)<br>(천 원/600kg) | 경영비(B)<br>(천 원/600kg) | 소득(A-B)<br>(천 원/600kg) |
|-----|----------------|----------------------|-----------------------|------------------------|
| 1++ | 20,392         | 7,329                | 5,196                 | 2,133                  |
| 1+  | 18,513         | 6,654                |                       | 1,458                  |
| 1   | 17,114         | 6,151                |                       | 955                    |
| 2   | 15,075         | 5,418                |                       | 222                    |
| 3   | 10,156         | 3,650                |                       | △1,546                 |

※경영비 : 2016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5,196천 원/600kg, 통계청)

### 분업과 소통이 성공의 비결

아직 앓던 티가 보이는 29살 곽문규 씨는 미소로 취재팀을 반겼다. 아버지와 잠시 휴식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한우 후계자들이 아버지 세대와 갈등이 많다는 얘길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늘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저희 농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버지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곽문규 씨 가족은 벼농사를 병행하며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40~50두로 시작한

사육두수는 150두를 넘기며 성장해왔다. 가족 분업과 그 과정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진 결과다. 분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벼농사까지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5월에는 한우 18마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모내기까지 겹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힘을 합쳐 그 시기를 잘 보냈습니다.”

힘든 순간도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곽문규 씨에게서 20대 청년답지 않은 진지함과 노련함이 묻어난다.

### 인공수정 도전해보세요

지금은 뿔속까지 한우인이 됐지만, 곽문규 씨도 한때는 다른 진로를 생각한 적 있었다고 한다. 친구들과처럼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이유에서 였다고.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배우는 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이 아님을 깨닫고 한국농수산대학교 대가축학과 한우전공으로 방향을 바꿨다. 3년간 간접적으로 회사 생활을 경험했던 방위산업체 복무기간 역시 한우 후계자로 전념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은 계기다. 단조로운 빌딩에서 업무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적한 농장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적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우가 인생 전부였다. 어려서부터 한우는 친구였고, 중고등학생 시절엔 이른 아침 먹이를 주고 등갓길에 나서는 자식 같은 존재였다. 충북 청주시 옥산면 하늘아래목장 곽문규 씨는 아버지와 함께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한우 후계자다. 아버지 곁에서 보고 배운 안목으로 지금은 인공수정까지 도맡아 하며 농장을 이끌고 있는 곽문규 씨를 만났다.

충북 청주시 하늘아래목장  
곽문규

## 한우 사육이 적성에 딱! 이더라고요~





추진력이 있어 뭐든지 빨리하는  
게 몸에 밴 곽문규 씨는  
인공수정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도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론과

실기를 평가하는 가축인공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바로 농장의 한우를 상대로 연습했고 궁금증이 생길  
때는 의사나 인공수정사에게 물어보곤 했다.

“한우 인공수정은 경관 통과가 어려워요. 초산일 경우  
경관이 볼펜 굵기 정도로 매우 좁은 데다 주입기를 잘못  
넣으면 방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추벽이 꺾여 있거나  
너무 깊은 소도 힘이 듭니다. 자궁에 도달해 정액을  
집어넣으면 한 달쯤 지나 초음파 검진을 합니다.”

인공수정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하는  
곽문규 씨가 진지한 듯하면서도 신이나 보인다. 늘 곁에서  
함께하며 돌봤던 한우였기에 더 이해가 빠르고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번식우에 맞게 축사 변경

곽문규 씨는 한우를 전공한 후계자답게 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새로 배운 지식을 농가에  
적용하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우방 사이 울타리를 제거한

### 한우 후계인 곽문규 씨가 전하는 성공 tip

- 🗣️ **소통하세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의 소통은 농장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 📖 **공부하세요!**  
한우를 전공했지만, 그 뒤로도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며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 👤 **만나세요!**  
SNS를 통해 우리 농장을 소개하고 다른 한우농장과  
소통하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 **시도하세요!**  
번식우 농가에 맞는 환경을 위해 아버지를 설득해  
우방을 넓혔어요. 결과는 성공입니다.
- 🔍 **물어보세요!**  
인공수정사 면허증 취득을 위해 의사나 인공수정사를  
찾아가 물어보며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성공의 비결이죠.

것이다. 전에는 여러 개의 우방에 4~5마리의 한우를 나눠  
키웠으나 이제는 하나의 우방에 20마리 이상을 풀어둔다.  
우방을 넓게 쓰면 한우 운동량이 많아지고 발정 주기가  
빨라져 수태율이 덩달아 오르기 때문. 번식우 위주로  
사육하는 하늘아래목장에 알맞은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한우들이 넓은 우방을 뛰어다니면 질척한 바닥도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진 땅이 복구 안 되면 물을 퍼내거나 석회를  
뿌려야 하는데, 저희 목장은 이 작업을 자주 하지 않아도  
쾌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곽문규 씨는 한우를 통해 배움을 쌓고 즐거움까지 누리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충청북도에서 진행한 한우 후계농가  
양성 교육에 참여해 번식우 관리법, 송아지 치료법 등을  
배웠고, 앞으로도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틈틈이 SNS를 통해 다른 농장과 소통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휘리릭~” 휘파람을 불자 넓은 우방을 돌아다니던 한우들이  
곽문규 씨 앞으로 모인다. 젊고 활기찬 주인 때문인지  
하늘아래목장 한우들도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인다. 🐮

한여름 숙취 해소

# 한우 요리로 똑딱

무더위에도 축사에 나가 쉽 없이 한우를 돌보는 축산인들은 하루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도 한다. 하지만 음주는 숙취를 동반하기 마련. 한우는 위장을 진정시키며 구토 및 설사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어 예민해진 소화기관을 달랠 수 있다. 여기에 비타민 C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황태,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콩나물을 곁들이면 숙취 해소로 그만이다. 🍵



## 한우콩나물잡채

**재료** 한우 우둔살 120g, 당면 150g, 콩나물 100g, 양파 1/2개, 표고버섯 3장, 홍피망 1/4개, 청피망 1/2개, 식용유 약간

**당면 양념** 간장 1T, 설탕 1/2T, 참기름 1t, 후추 약간

**우둔살 양념** 간장 2T, 설탕 1T, 다진 마늘 1t, 다진 파 1T, 참기름·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

- 1 당면은 30분 정도 불린 뒤 끓는 물에 데쳐 찬물에 행구고 콩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 2 고기와 표고버섯은 5cm의 길이로 썰어 고기 양념장에 재워둔다.
- 3 양파와 피망은 5cm 길이로 채썬 후, 각각 볶고 소금간을 한다.
-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을 볶아준 뒤 고기도 볶는다.
- 5 팬에 당면과 당면 양념을 넣고 볶아준 뒤 볶아둔 고기와 채소들도 넣고 함께 볶는다.

## 한우황태탕

**재료** 한우 사골 600g, 황태 1/2마리, 무 30g, 대파 1/2개, 홍고추 1/4개, 소금·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

- 1 사골은 하루 동안 핏물을 제거한다.
- 2 냄비에 사골을 넣고 끓으면 물을 버리고 사골을 행군다.
- 3 냄비에 다시 사골을 넣고 물을 채운 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끓인다. 물이 1/3로 줄어들면 물을 다른 냄비에 따로 담아주는데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다.
- 4 걸러낸 국물은 한번 끓인 뒤 식혀 기름을 제거한다.
- 5 황태는 손질하여 한입 크기로 자른다.
- 6 무는 길이 4cm, 폭 0.5cm 크기로 채썬다.
- 7 사골 국물에 무를 넣고 끓이다 황태를 마저 넣고 끓여 소금으로 간한다.
- 8 송송 썬 대파와 홍고추, 후추를 넣어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는다.



# 웹진으로 만나는 한우자조금

네이버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한우자조금>을 반응형 웹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우자조금> 표지 또는 아래의 QR코드를 검색창에 갖다 대면 웹진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더 편리하게 바뀐 웹진 <한우자조금>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웹진 <한우자조금>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진  을 설치하세요.

안드로이드

- 1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 열기
- 2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3 '더보기'에서 '+'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1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 열기
- 2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3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4 Safari의 하단 '공유'를 클릭한 후 '+' 홈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 QR코드 스캔 방법

- 1 모바일 네이버 검색창 오른쪽의  를 클릭
- 2 아래로 옵션이 확장되면  QR코드를 선택해 클릭
- 3 자동인식창에 QR코드를 대면 웹진으로 연결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7년 8월 28일(월)까지

당첨자발표 2017년 9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지난호 당첨자

한우육포

백설희, 백귀례

한우야 놀자

신승남, 정경석, 신병진, 박성욱, 차원효, 최원, 김창현, 정석원,  
이지훈, 유재범

한우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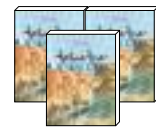
한우야 나랑놀자, 이현희, 이준임, 이미경, 나양금, 박상현, 이승우,  
임혜경, 양한주, 정은희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대행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한우 사육의 지침서  
〈한우야 놀자〉 10명



두툼한 한우패티가 버거 속에  
〈한우버거〉 10명

##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셔서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후 비즈링 해지는 고객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듣기 좋고  
귀여운  
비즈링~  
친구·지인들이  
좋아해요~



# 더위를 이기는 6가지 방법

한여름 무더위가 버거운 건 한우도  
사람도 마찬가지. 사양관리는 철저히 하나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한우농가를 위해  
6가지 건강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1



하루 세끼  
챙겨 먹기

고단백, 고열량의 음식으로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2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기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3



과일  
섭취하기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4



술, 담배  
멀리하기

음주와 흡연은 신체의  
수분을 앗아가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5



넉넉한,  
기능성 의류 착용

열 발산이 잘되는 소재의  
옷이나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6



더운 날일수록  
여유를 갖기

더운 시간대를 피해 일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진행합니다.